



사라져가는 희귀식물 <11>

마 타 리

• 학명 *Patrinia Scabiosefolia*
FISCHER

글쓴이 : 김 재 황

멀 고 먼 옛날, 소아
시아의 ‘프리기
아’ 라는 나라를

다스리는 미다스왕이 있었
습니다. 그는 어쩌나 욕심이
많았던지,

“제 손이 닿는 것이면 무
엇이든 황금이 되게 해 주
십시오.”

하고 하늘에 기원했습니
다. 그 때나 지금이나 지극
히 너그러우신 하늘에서는
그 기도를 들으시고,

“네 원 대로 이루어지게
하겠노라.”

하고 말씀하셨습니다.

어느 물건이든 손만 대면,
그 귀한 황금으로 변하게
되었으니, 미다스왕의 기쁨

이야 어떠했겠습니까.

그는 궁궐의 기둥을 어루만져 보았습니
다. 금방 황금으로 변해 번쩍거렸습니다.
그는 또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쓸어내렸
습니다. 옷도 역시 황금으로 변해 눈이 부
셨습니다.

식사 때가 되었습니다. 그가 만지는 그릇
이며 스푼이 모두 황금으로 변했습니다. 그
는 다시 사과를 먹기 위해 집어들었지요.

그러자 사과마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. 그러니 먹을 수가 없었지요.

어디 그뿐인가요. 미다스왕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이 달려와 그의 가슴에 안겼을 때, 그가 무심코 껴안자마자, 그 딸 또한 황금으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. 미다스왕은 그 때에 서야 비로소 자신이 너무 욕심이 많았음을 깨닫고 크게 뉘우치며 울었습니다.

나는, 늦여름이나 이른 가을,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마타리가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, 어쩐지 이 미다스왕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납니다. 그래서 그 노란 황금빛 꽃이 긴 꽃대 위에서 바람에 흔들릴 때, 어찌 잘못해서 내 몸에 닿기라도 한다면, 금방 내 자신이 황금으로 변해버릴 것만 같은 착각에 선뜻 앞으로 다가 서기가 두렵습니다.

그러나 그것은 모두 나의 기우(杞憂)일 뿐, 마타리는 사랑의 꽃입니다. 마타리는 우리 나라 각지에서 볼 수 있는 여러해살이 풀입니다. 키는 약 1m쯤 되고 8월 경부터 꽃이 피는데, 줄기 윗부분에서 갈라진 가지와 줄기 끝에 종 모양의 노란 잔꽃이 산방꽃차례로 다닥다닥 달립니다.

가름한 목 하늘로 빼올리고
수줍어 웃는 마타리꽃

곁에서 너를 바라보고 서 있으면
멀리 떠나간 그리운 사람 앞에
돌아와 서 있는 나를 보게 된다.

너와 함께 들길을 걸어가면
하늘의 물소리가 들린다.
별들과도 이야기한다.

허수아비가 바람에 흔들리고
송아지가 운다.

낮달이 하느님처럼 어깨 너머 다정하다.

구름의 손짓을 느끼며
옛사람을 생각하는 마타리꽃

— 이젠 사랑하리라.

기다림을 넘어서 기도하리라.

너의 등 뒤에 황혼이 붉게 깔리고
별이 뜬다.

더 많은 별이 뜨면 너와
물을 건너 너의 나라로 가리라.

이성선 시인의 ‘마타리꽃’이라는 시입니다. 가름한 목을 하늘로 길게 뻗은 마타리 꽃을 보고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따뜻한 가슴을 만납니다. 사랑하고, 그리고 기다림을 넘어서 기도하는 시인의 모습이 참으로 숭고하게 다가옵니다.